

# 방탄소년단 인터뷰에서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한 CBS, 팬 항의에 결국 삭제

미국 CBS가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가 팬들의 항의로 결국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는 영상으로 교체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 오전 CBS 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에 출연했다. 출연 당일 선데이 모닝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약 8분20초 분량의 방송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방탄소년단, 케이팝 돌풍(BTS, the Korean pop sensation)'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이 영상 속에서 선데이 모닝 측은 방탄소년단과의 인터뷰 앞에 케이팝의 등장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 현상에 대해 소개했다. 이때 케이팝이 등장한 한국과 서울의 위치를 나타내는 화면이 배경에 깔렸는데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다. 방송 이후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CBS 선데이 모닝 트위터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굉장한 정치적 이슈다. 최소한 두 단어를 함께 적어야 한다."며 잘못된 지도 표기에 정정 요구를 했다.

항의가 쇄도하자 '선데이 모닝'은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영상을 다시 올렸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곡을 동시 진입시켰다.

지난 23일 업데이트된 빌보드 최상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와 팝스타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한 수록곡 '메이크 잇 라이트' (Make it Right)가 각각 8위와 95위에 올랐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세 번째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3개 앨범을 1위에 올리는 데는 1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11개월 1주의 기록이 있는 밴드 비틀스보다 앞서는 것이다.

# 아카데미 "넷플릭스 영화도 오스카 수상 가능"

아카데미상(오스카)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 학아카데미(AMPAS)가 영화계 안팎에서 논란이 된 '넷플릭스 영화'의 오스카 수상 자격을 인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MPAS 회원들은 전날 투표에서 수상 자격에 관한 핵심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대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겨냥해 만든 영화라 하더라도, 최소 극장 상영기간인 7일간만 스크린에 걸면 오스카 수상 자격이 부여된다. 존 베일리 AMPAS 회장은 "우리는 영화예술의 통합을 위해 극장경험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오스카의 선택을 위해 더 넓은 범주의 영화들이 제출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영화의 오스카 수상 논란은 할리우드의

거물인 영화감독 겸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스필버그는 "오프라인 극장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을 원천으로 하는 제작 시스템을 가진 넷플릭스 영화는 아카데미상이 아니라 TV 시리즈를 시상하는 에미상으로 가야 한다."면서 "오스카 후보에서 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 영화를 수상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대표적인 넷플릭스 영화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로마'는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으나 '그린북'이 최종 수상했다.

# 정태춘·박은옥 부부 새 앨범 발표



정태춘 박은옥 부부가 7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정태춘 박은옥은 30일, 온·오프라인에서 새 앨범 '사람들 2019'를 공개한다. 이번 앨범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진행중인 '정태춘 박은옥 4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정태춘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이후 7년 만에 발표하는 음반이다.

'정태춘 박은옥 40 프로젝트'는 정태춘 박은옥 활동 40년의 음악사적, 사회적 의미를 조망하는 기념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콘서트, 앨범, 출판, 전시, 학술, 아카이브, 트리뷰트 프로그램 등이 전국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들의 전국 투어 '날자, 오리배'가 제주와 서울에서 추가공연이 마련되는 등 매진을 이어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태춘은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모순과 저항을 운명으로 담아낸 실천적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은옥은 정태춘의 노래들을 탁월하게 소화해 내고, 함께 활동해온 보컬리스트다. '쫓겨'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사랑하는 이에게' '봉숭아' 등 시적 서정성으로 큰 사랑을 받는 명곡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한편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정태춘의 이야기를 글로 만날 수 있는 책 4권이 출간됐다. 출간된 책은 정태춘의 신작 시집 '슬픈 런치', 복간된 첫 시집 '노독일처', 노래에세이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음악과 행적을 조명하는 현정출판물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등이다.

MY BABY. MY STYLE.

#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